거래 줄자 엇갈린 증권사 성적표… 운용·IB가 실적 갈랐다

9개 증권사 3분기 순익 1.3조
NH투자, 보수적 운용·IB로 선방
하나, 매매평가손실에 순익 급감
한국투자, 운용 부진에 실적 악화
iM, 기업금융 수익에 순익 증가
미래에셋, 스페이스X 평가손실 전망


여의도 증권가 전경. /메트로경제

주식 거래가 위축되면서 올해 3분기 주요 증권사의 합산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 위탁매매 수수료가 비슷한 폭으로 감소한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자산 운용과 기업금융 성과에 따라 실적은 크게 엇갈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분기 실적을 공개한 증권사 9곳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294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8.5%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9.7% 줄었다.

SK증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를 합산한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2분기 118조1000억원에서 3분기 75조3000억원으로 36.2% 감소했다. 거래가 뜸해지면서 위탁매매 수익을 별도로 공개한 증권사 7곳 모두 관련 수익이 줄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의 위탁매매 수수료는 전분기보다 각각 48.1%, 46.0% 줄었다. 수수료 감소폭은 NH투자증권이 더 컸지만 순이익 감소율은 NH투자증권이 21.6%, 하나증권이 94.0%였다.

NH투자증권은 금리 상승기에 보수적인 운용 기조를 유지했다. 운용투자손익과 관련 이자수지는 319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1.6% 줄었고, 회사채 주관과 기업공개(IPO) 실적도 이익을 뒷받침했다. 같은 기간 하나증권은 매매평가손실이 552억원에서 1104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업금융 수익이 216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2% 늘었지만, 운용 부문 순영업수익은 1583억원으로 51.6% 감소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보유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해외 투자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도 낮아졌다. 발행어음 순이자마진 축소도 운용 수익에 부담을 줬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6일 한국금융지주 실적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 관련 손실이 추정을 상회"한 점을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요인으로 짚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기타 외환거래를 포함한 한국금융지주의 3분기 연결 기준 외환거래손실은 세전 1667억원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목표전환형 랩어카운트 판매 부진으로 금융상품 판매수수료도 1660억원에서 304억원으로 줄었다.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1549억원 순이익에서 400억원 순손실로 돌아서면서 한국투자증권의 연결 순이익은 281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2% 감소했다.

iM증권은 실적을 공개한 9곳 가운데 유일하게 전분기보다 순이익이 늘었다. 위탁매매 수익이 46.6% 줄었지만 이자 등 기타 수익과 기업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수익이 늘면서 별도 기준 순영업수익이 8.7% 증가했다. 연결 순이익은 218억원으로 4.1% 늘었다.

특히나 증권사 실적 중에서는 오는 12일 실적을 발표하는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투자자산의 평가손익이 관건이다.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연결 순이익 1조9052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당시 연결 세전이익 2조5287억원 가운데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이 1조6242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3분기에는 스페이스X 지분 평가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함께 하락하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관련 평가손실을 5800억원, BNK투자증권은 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지배주주 순손실 전망치는 2292억원이다. 실제 평가손실 규모는 결산에 적용하는 지분 평가가격과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증권의 3분기 순이익 시장 전망치는 3569억원으로 전분기 실적보다 26.9% 낮다.

3분기 실적을 먼저 공개한 증권사 9곳의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6조94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4% 늘었다. 상반기 증시 호황기에 쌓은 이익이 3분기 부진을 상쇄했다. 4분기에는 주식 거래대금이 얼마나 회복되는지와 금리·환율 변화가 보유 자산의 평가손익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연간 실적을 좌우할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반토막 레버리지 ETF, 개미 '사고' 기관 '팔고'

레버리지 ETF 수익률 50% 넘게 급락
개인, 한 달간 2종에 2.4조 순매수
기관, 인버스 매수로 추가 하락 대비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증시 급락 속 개인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기관은 인버스 ETF를 사들이며 엇갈린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증시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개인투자자와 추가 하락에 대비한 기관투자가의 베팅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은 지수 상승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거 사들이고 있지만, 해당 상품들은 한 달 새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증시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등을 기다리는 개인들의 투자 전략이 손실 만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10월 8일~11월 9일) 개인투자자는 국내 ETF 시장에서 7조5061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8조4864억원을 순매도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승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매수세를 집중했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KODEX 레버리지에 1조2287억원이 유입됐다.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에도 1조1949억원이 몰렸다. 두 상품에만 2조4000억원 넘게 투입한 셈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두 ETF의 수익률은 각각 -51.29%, -57.75%를 기록했다.

반면 기관은 개인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기관은 KODEX 레버리지를 1조4515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를 1조2338억원 순매도했다. 반대로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하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를 3242억원, KODEX 인버스를 1254억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담았다.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을 줄이는 한편 하락장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늘린 것이다.

이 같은 수급 차이는 증시가 급락한 지난 6일에도 나타났다. 이틀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1%, 10%씩 급락하자 저가매수를 노린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KODEX 레버리지(1001억원)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657억원) 등 상승방향 상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하락 방향 상품인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며 대조를 이뤘다. 각각 360억원, 141억원씩 담았다. 단기 급락에도 개인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가능성에, 기관은 추가 하락 위험에 각각 무게를 둔 모습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대체로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낙폭을 만회할 기회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반등이 지연되거나 추가 조정이 이어질 경우 지수 상승에 베팅해 레버리지 ETF를 대거 사들인 개인투자자의 손실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급락을 과거 주요 위기 국면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른 조정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에 낙폭이 커진 만큼 추가 하락 압력은 남아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면서 저가 매수 매력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역대 1위 고점 대비 하락률을 기록했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3년 7개월에 걸쳐 75.4% 하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2개월에 걸쳐 54.5% 하락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생계비 최대 200만원

금감원·금융협회 등 피해자 지원 협약

보이스피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피해 직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전문 심리상담 6회를 마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굿네이버스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사업 '다시, 일상으로'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피해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내년 10월까지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중위소득 150% 이하다. 월 소득 기준으로는 1인 가구 384만원, 2인 가구 629만원, 4인 가구 974만원 이하다. 생계비는 실제 피해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선정된 피해자는 전국 연계기관에서 전문 심리상담을 최대 6회 받을 수 있다. 피해 이후 겪는 트라우마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병원과 연계해 심리상담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받는다. 신청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소득 증빙서류 등을 갖춰 굿네이버스 사무국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앤트로픽, 몸값 낮춰 이달 상장 추진

美 추수감사절 전 IPO 마무리 목표
기업가치 1.25조~1.75조달러 전망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기술주 매도세 속에서도 이달 추수감사절 연휴 전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가치 전망은 한때 거론됐던 2조달러에 못 미치지만, 기업공개(IPO)를 통한 조달액은 최대 1000억달러(약 13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앤트로픽이 오는 26일 미국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IPO를 마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앤트로픽의 기업가치를 1조2500억~1조7500억달러, 조달 규모를 800억~1000억달러로 예상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AI 관련주 약세를 반영해 공모가를 보수적으로 책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FT에 따르면 한 대형 투자자는 상장 시 기업가치를 약 1조5000억달러로 내다봤고, 다른 기관투자자는 1조3000억달러 수준을 예상했다. 투자자들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기업가치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IPO를 추진할 의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시장조사업체 바이탈 널리지는 AI 관련주 매도세가 이어지면 앤트로픽의 공모 여건이 나빠지고,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장을 추진하는 앤트로픽은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설비에도 투자하고 있다. FT는 8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이 지난 9월 말 미국 발전설비 공급업체 원파워솔루션스와 34억달러(약 5조1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계약에는 총 1.7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 발전기와 설치에 필요한 설계·시공 역량이 포함됐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상장사 20곳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코스피 7곳·코스닥 13곳 대상 선정

금감원은 지난 8월 교육 수요조사를 거쳐 코스피 상장사 7곳과 코스닥 상장사 13곳을 교육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5곳에서 5곳 늘었다. 올해는 그동안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증권사도 2곳 참여한다.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이 있는 금감원 직원이 각 회사를 방문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와 임직원의 주식 소유 상황 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주요 규정을 설명한다.

상장사 임직원은 일반 투자자보다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쉬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경우에도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교육에서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신약 개발이나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고 주식 소유 상황도 보고하지 않아 조치된 사례를 소개한다.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 분야에 진출한다고 발표하고,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려 한 사례도 다룬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제재도 안내한다.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거래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허정윤 기자